

#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대학원생 현지조사 공모사업 후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수료  
손수경

## 제4 물결 페미니즘과 중국 청년 페미니스트의 연결: 나, 너, 그리고 우리

### 1. 연구내용 및 현지조사 결과

연구자는 중국의 청년 페미니스트 운동과 청년세대 문화를 연구하고 있으며,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대학원생 현지조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5~6월, 8월, 11~12월 중국, 대만·홍콩·마카오, 일본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연구자의 박사논문은 다양한 경계를 넘으며 나아가고 있는 중국 여성들의 주체적 실천의 수행과 변화, 그리고 이들의 다양한 삶의 양상을 조명하면서, 전 지구화 시대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제로 전 지구화와 이주라는 시대적 맥락 안에서, 중국 청년 여성들은 국내외를 가로지르며 초국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페미니스트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온·오프라인 페미니즘 활동을 이어나가며, 중국 안팎의 청년 페미니스트 세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자가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발견한 사실 중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많은 중국의 젊은 여성들이 더 나은 교육과 일자리 기회, 자유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해외로 이주해왔으며, 이들 중 일부는 국내에서 페미니스트 활동을 전개하다 공안의 감시와 당국의 압박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었다. 해외로 이주한 청년 여성들은 국내에서 금지된 페미니즘 관련 캠페인, 퍼포먼스 등을 조직하고 실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중국과 외부 세계를 잇는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경계를 가로지르며 초국적 차원의 페미니스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많은 수의 중국 청년 여성들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로 이주해왔고, 각국 청년 페미니스트들과 교류·연대함으로써, 페미니스트 활동을 지속·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스트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장(場)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국내와 국외의 경계를 넘나들며 계급, 민족, 섹슈얼리티, 도시와 농촌, 장애 등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층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며, 상호돌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옴으로써, 이들이 만든 장소는 중국 청년 여성들의 연대와 저항의 중요한 중심점이 될 수 있었다. 나아가, 중국 청년 여성들의 이주를 계기로 중국 페미니즘과 동아

시아 페미니즘이 서로 조우하게 되었고, 이러한 만남은 동아시아 청년세대 간의 경험과 담론이 교차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초국가적 연대(transnational solidarity)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경계를 가로지르는 중국 청년 여성들의 이동과 실천을 통해, 초국적 페미니스트 운동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 의의를 지니며, 연구자는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통해 다양한 장소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실천을 재구성해 나가고 있는 중국 청년 여성들의 주체성과 역동성을 보여줌으로써, 동아시아 페미니즘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

## 2. 현지조사 수행 과정

연구자는 2023년 6월 파일럿 스터디를 시작으로, 중국 국내(톈진, 베이징, 상하이, 홍콩, 마카오)와 중국 국외(한국, 대만,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 다중 현장(multi-sited) 에스노그래피를 수행해왔다. 연구참여자는 만 19세 이상 중국 국적을 가진 성인에 한정하며,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만 19세~38세 여성이다: (1) 중국 국내외에서 페미니즘 활동을 수행해 온 자, (2) 중국 국내외에서 페미니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3) 중국 국내외에서 페미니즘 관련 단체나 기관에 종사하는 자. 연구자는 202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중국 청년 페미니스트 활동가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박사논문 작성을 위해 약 80명과의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특히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현지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2025년 5~6월, 8월, 11~12월에 걸쳐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스노우볼 샘플링을 활용하여 더 많은 중국 청년 페미니스트 활동가들과 연결될 수 있었으며,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유의미한 심층 면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2026년 하반기에 중국(청두, 충칭, 홍콩, 심천, 광저우)에서 추가 현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약 20명의 연구참여자와 심층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 3. 현지조사 사진과 필드 노트 일부 내용



**2025년 5월 25일(베이징)**  
 날씨가 너무 포근하고 따스하다. 이 카페는 대학생들이 간단히 식사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곳 같다.  
 활기찬 분위기. 음악도 좋네.  
 사진을 전공한 A가 여성주의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다. 나에게 어떤 사진이 가장 할머니, 엄마, 딸 3대(三代)의 사랑, 친밀성, 존중을 잘 담아냈는지 묻는다. 사진을 잘 모르지만, 사진을 보자마자 참 몽클하다.



**2025년 5월 26일(톈진)**  
 톈진은 베이징과는 달리 꽤 고요하다. 외국인 여행객도 별로 없고.

톈진 토박이인 B가 톈진 시내(?)를 구경시켜 준다. B가 베이징에서 기차를 타고 톈진에 오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줬는데, 내가 실수로 톈진역이 아니라 남톈진역에서 내렸다. 엇갈려서 고생했다.

2번째 만남, 오늘은 유독 더 가까워진 듯. 남자친구, 졸업, 부모님... 조금 더 속 깊은 이야기. 오늘 우리는 자매가 되었다.



**2025년 8월 25일(마카오)**  
 마카오대학교에서 연구자로 일하고 있는 C가 초대해 준 학회에 참가했다.

나와 비슷한 주제로 연구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지만, 여성주의 관점을 가진 연구는 꽤 있다. 다들 한국인인 내가 중국 여성주의 연구한다고 하니까 궁금해한다. 질문 폭격.

C랑 학회 끝나고 수다 떨기. C는 중국 농촌 여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같은 연구자로서 고충 털어놓기.



**2025년 11월 15일(홍콩)**  
 중국 여성주의·퀴어 연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교수님들 및 신진 연구자들과 만남.

중국 본토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

이들에게 여성주의 활동이란 매일매일의 삶 속 경험과 실천의 차원이자, 위협과 부담을 인식하면서도 침묵하지 않고 말하기를 선택한다는 것. 참 인상 깊다.

추후 홍콩 현지 맥락과 감수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들의 선택, 전략, 그리고 관계 맺음.